

#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전남도민 동행 릴레이

김영록 전남지사 첫 주자로 시작  
“섬의 수도 목포가 설립 최적지”  
전남도 4개 시군과 유치 건의문  
내달 최종 후보지 결정 8월 출범

한국섬진흥원을 목포에 유치하기 위한 ‘전남도민 동행 릴레이’가 지난 26일 김영록 전남지사를 첫 주자로 해 시작했다. 전남도는 이날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과 ‘한국섬진흥원 목포시 설립 공동 유치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초 우리나라 섬 문화 연구, 자원 파악, 개발 검토 등 섬 정책 전반을 맡게 될 한국섬진흥원의 전남(목포) 유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경남(통영, 남해), 충남(보령, 홍성)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자 전남도가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섬진흥원 후보지는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균형발전, 입지여건, 섬 발전정책 사업과의 연관성 및 참여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설립지를 결정하고 8월 정식 출범하게 된다.

전국 섬의 65%(2165개)를 보유한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섬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체 추진한 ‘섬발전연구원 설립·유치 연구용역’을 토대로 섬진흥원 설립 방안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2016년부터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5년부터는 주민 주도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등 다양한 섬 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인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도 목포와 무안이 지역구인 김원이,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전남도와 지역정권은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전남도민 동행 릴레이”는 ‘한국섬진흥원은 대한민국의 섬의 수도 목포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목포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중심이자 다도해의 관문이다. (사)한국섬학회, (사)한국섬학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등 섬 관련 전문연구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 섬 발전 정책 수행이 가장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을 비롯해 완도군, 진도군 등 섬을 낀 지역이 목포시의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섬진흥원 유치 당위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은 ‘한국섬진흥원 목포시 설립 공동 유치 건의문’에서 “서남권 섬 벨트를 이루고 있는 신안·진도·완도군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아름다운 다도해를 배경으로 1380개(전국 섬의 43%)의 섬들만 이뤄졌다”면서 “그동안 다양한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꾸준하게 대한민국 섬 발전 정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 일컫어지는 목포시는 오랫동안 인근 섬 주민의 교통, 경제, 생활의 중심지로 섬 사람과 섬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도 섬 사람들의 애환과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고 덧붙였다. 이들 지자체는 “전남 서남해안은 우리나라 섬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26일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가 ‘한국섬진흥원 유치’ 전남도민 동행릴레이를 시작했다. 동행릴레이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이 결정되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된다.

적 이점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문학적, 정서적 관점에서 미래 섬 진흥 정책의 중심축이 되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다도해의 관문이자 해양과 내륙을 잇는 섬들의 수도인 목포시가 섬진흥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유치 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 원, 부가가치효과

274억 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은 섬 연구기관 및 단체가 집적돼 있어 섬 발전정책 기반 구축이 용이해 섬진흥원 설립의 최적지”라며 “그동안 섬진흥원 설립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반드시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석열 26.8%  
이재명 25.6%  
이낙연 14.6%

입소스 조사 대권 지지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대권의 양강 구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천1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6.8%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25.6%로 오차범위 내 2위였다.

그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14.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9%) 순이었다.

내년 대선과 관련,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50.1%였고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는 의견은 43.8%였다.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바꿔야 할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검찰 개혁’(12.4%), ‘소득주도성장’(10.0%), ‘대북·외교안보’(9.0%)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이용섭 시장, 문화예술계 소통 강화...문화도시 광주 위상 높인다

문화전당·문화재단 등 현장 찾아  
코로나19 속 애로 사항 청취  
아특별 개정안 후속 대책 등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문화예술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 26일 광주시가 지정한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특별주간 마지막 행보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문화재단, 광주 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민예총) 등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최원일 문화전당장 직무대리에게 “문화전당이 국가 기관으로서 애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정식 전당장이 선임돼야 하고 (문화전당과

통합되는) 아시아 문화원 고용 승계 대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와 랜드마크 공간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직무대리는 “지역과의 스킵십을 강화하려고 5월에 시립예술단과 협업 공연을 선보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중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을 찾아 김덕진 이사장에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도적 역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병준 의원과 함께 광주 문화재단을 찾아 시민과 예술인 간 문화 협력의 가교 기능을 당부했다.

민예총 소속 단체장들은 이 시장과 간담회에서 공공 예술공간 확보, 광주 역사를 담은 사진 아카이빙, 국악 상설공연 민간단체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6일 북구 문화예술회관 내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민예총)를 방문해 박종화 회장을 비롯한 15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